

CONNECTING DOTS 08

2020.04.20



- # 대한민국의 물류 혁신에 도전, 물류 플랫폼 '로지스온' 설립
- # '부산테크터미널'과 함께 폐배터리 재생 기업 '에코알앤에스' 설립
- # YC TEC과 함께, 친환경 미드솔 제조 기술 개발 기업인 '프로젝트에스' 설립
- # 선보엔젤파트너스가 'CES 2020'에 참여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물류 혁신에 도전, 물류 플랫폼 '로지스온' 설립

동남권 중견기업을 위한 물류 플랫폼 '로지스온'이 3월 문을 열었습니다. 로지스온은 국내 대형화물 중개업 1위 사업자와 함께 설립한 회사입니다. Logis-On이라는 이름은 '물류의 혁신을 시작한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류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동남권 중견기업들은 타지역보다 비싼 물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물 차주들이 한 번 운송을 하러 갔다가 빈 차로 돌아오는 이른바 '공차' 문제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류의 '비효율'을 개선해 줄 독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로지스온은 향후 동남권 중견기업에 물류비 절감의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단순한 운송 주선사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선진 물류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나아가 동남권 물류를 중심으로 전국 물류 중개의 독보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대한민국의 물류 혁신,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부산탱크터미널' 과 함께 폐배터리 재생 기업 '에코알앤에스' 설립

급성장하는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한정된 자원을 재사용해 보자는 아이디어로 시작된 폐배터리 재생 기업이 있습니다. 에코알앤에스입니다.

지난 3월 선보엔젤파트너스는 부산의 대표 버스회사인 삼신교통과 오일저장 탱크 운영 및 운송회사인 부산탱크터미널, 전국 유일의 금속공학 전문가 부경대학교 왕재필 교수와 합작법인 에코알앤에스를 설립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부상하면서 폐배터리의 재활용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은 활발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는 대부분 습식

공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코발트 및 구리 등의 유가 금속을 회수해 재활용합니다. 습식 공정은 복잡한 공정과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공정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대량처리를 하려면 대규모의 부지 등의 투자 비용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알앤에스는 습식 공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가 금속을 친환경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건식 제련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에코알앤에스는 '친환경 리사이클 기업'으로 유한한 자원을 무한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YC TEC과 함께, 친환경 미드슬 제조 기술 개발 기업인 '프로젝트에스' 설립

글로벌 신발 메이커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100% 재활용이 가능한 신발을 제작해 폐기물의 발생을 막고 세계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선보엔젤파트너스는 환경친화적인 신소재 원료를 개발하는 기업 YC TEC과 함께 친환경 미드슬 제조 기술 개발 기업인 '프로젝트에스'를 설립했습니다.

운동화 제조에는 다양한 재료와 접착제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미드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드슬은 운동화의 핵심으로 러닝 시 충격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젝트에스는 SCF 발포 기술로 친환경 미드슬을 제작합니다.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SCF 공법을 SCF 발포 기술에 적용해 친환경 생산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프로젝트에스'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기술을 인정받아 설립 1개월 만에 TIPS에 선정되었습니다. 친환경적인 신발을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프로젝트에스의 기술을 적용하면 획기적인 생산공정의 개선이 이뤄질 것입니다.

'2020 라운드테이블'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2020 라운드테이블' 주목하라

선보엔젤파트너스가 매월 주최하고 있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만들어가는 '라운드테이블'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2020 라운드테이블'은 주주 및 파트너 중견기업 중심의 프라이빗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은 지난 1월 30일 부산 본사에서 열린 38번째 라운드테이블입니다.

형식을 바꾸니 내용도 질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기존 40~50명이 참여했을 때 스타트업 IR은 발표 20분, Q&A 10분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월 열린 새로운 라운드테이블에는 주주 및 파트너 중견기업 10여 분이 참여했고, 스타트업 IR은 열린 질문과 답변 속에 각 담당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참석 인원은 줄었지만, 라운드테이블이 열린 공간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은 스타트업이 시리즈 A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기 전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고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검증된 팀을 합리적인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은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파트너 기업으로부터 다섯번의 투자유치를 한 기업이 있습니다. 실시간 3차원 형상 측정장치 개발 기업 내일해입니다. 내일해는, 2번에 걸쳐 선보엔젤에서 투자를 진행하며 팀스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검사장치 분야 글로벌 대기업은 물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핵심 파트너들과도 다양한 기술개발을 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격적인 성과에 앞서 추가적인 자금 및 비즈니스 지원이 필요하여 당사의 후행투자 뿐 아니라 동시에 사업에 깊이 관심을 갖는 파트너 기업가분들이 함께 투자에 참여하여 약 3.7억의 브릿지라운드 엔젤펀딩을 진행하였고 성과가 가시화되는 하반기에는 보다 큰 펀딩 라운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즈니스 연결과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들과 새로운 산업을 찾는 기업가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라운드테이블의 포맷 변경을 통해 '내일해'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의미있는 협업건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 라운드테이블은 이런 협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2019 라운드테이블 in 유럽

지난해 11월 7박 9일 동안 파트너 중견기업 대표와 선보엔젤파트너스·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의 임직원 등 17명은 프랑스, 독일, 핀란드의 글로벌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오픈이노베이션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2019 라운드테이블 in 유럽’을 진행했습니다.

7박 9일 동안 파리,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헬싱키의 글로벌 기업을 돌아봤습니다. 이들은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하되 미래 산업 트렌드를 읽고 관련 분야의 씨앗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슈나이더 일렉트릭, 다쏘시스템, 명품 글로벌 기업 LVMH는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조선 산업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SW 플랫폼인 AVEVA 등의 SW 기업을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다쏘시스템은 바이오 분야, 건설 분야 확장을 위해 관련 기업들은 M&A 하여 부가가치 사업군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LVMH는 헤네씨, 돔페리뇽, 리모와, 디오르, 그리고 최근에는 티파니 등 75개의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를 인수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사업을 재창조해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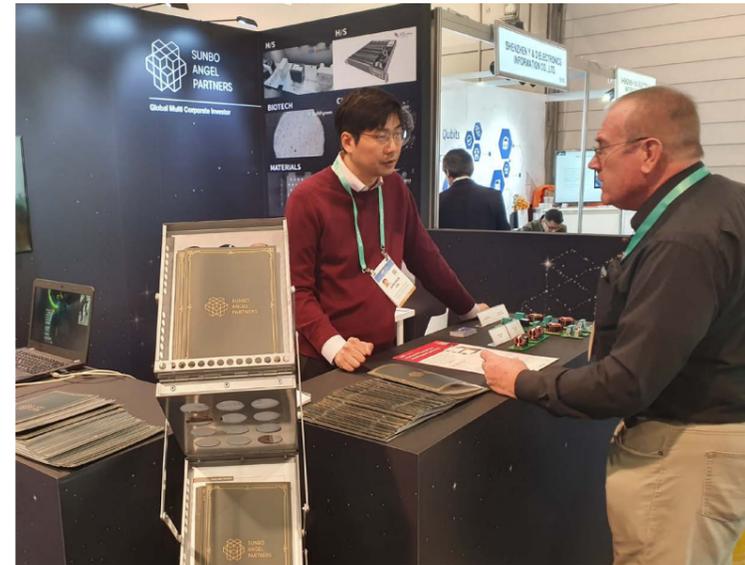
독일에서 방문한 BMW Motorcycle Factory, 보쉬, 바스프도 중견기업 대표들에게 많은 자극을 준 기업입니다. 보쉬는 최근에 다임러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JV를 만들고 연료전지를 만들기 위해 또 다른 JV를 산업의 파트너와 만드는 등 360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MW의 베를린 공장의 공정을 들여다보면 현장에서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는 공정들이 적용됩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축적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방문한 바르질라, 노키아, KONE는 오픈이노베이션의 중요성과 실행력을 보여줬습니다. 바르질라는 최근 전 세계 해운을 모니터링하고 자율주행 선박의 기술 리드를 위해 트란사스, 가이던스 마린 등의 회사를 차례로 M&A하며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키아는 5G 네트워크 플랫폼을 장악하고자 빠르게 인수합병으로 사업을 변신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업계 글로벌 Top 4 코네는 티센크루프와 같은 동종 업계 인수를 통한 확장을 노리면서, 동시에 ‘People flow’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SW 및 기반 기술을 내재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운드테이블 in 유럽을 통해 방문한 글로벌 기업의 2018년 매출액을 합하면 총 310조 7800억 원에 이릅니다. 영업이익률은 15~20%에 이르는 놀라운 부가가치를 제조산업에서 창출합니다. 오픈이노베이션을 지향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통점은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한 M&A를 통해 기존 조직과 화학적인 결합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타트업들과 협업한다는 점입니다. 7박 9일 동안 이뤄진 라운드테이블 in 유럽은 중견기업에게 많은 자극을 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지역 중견기업 연합펀드’와 ‘선보엔젤파트너스’ 플랫폼은 20개의 부·울·경 중견기업에게 최고의 벤처기업·글로벌 기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중견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존재 이유이고 사업의 목적입니다. 라운드테이블 in 유럽은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철학을 실행하고 스타트업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도전입니다. 7박 9일의 여정은 ‘Connecting Dots의 뜻을 올리다’라는 책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가 ‘CES 2020’에 참여한 이유는?



지난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0’에 선보엔젤파트너스가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CES의 핵심 키워드는 ‘인공지능을 우리의 일상으로(AI in everyday life)’입니다. 5G 이동통신 및 AI, 미래형 교통 시스템, 첨단 헬스케어 기술,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이 선보였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CES 2020에 투자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부스를 설치해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찾는 곳인 엔터프라이즈 전용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 포트폴리오 기업 홍보와 미국 진출의 전략적인 추진을 도모했습니다.

다양한 기업 종사자들이 부스를 방문했고, 다양한 스타트업을 발굴했습니다. FGPA 슈퍼컴퓨팅 기술과 3D 프린팅 기술로 혁신적인 협동로봇을 만드는 미국의 ‘Haddington’ 등 유수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현재 투자 검토 진행중입니다. 이들은 미국 및 유럽의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사 설립 및 파트너십을 추진하기 위해, ZGC Capital, IMEC Partners 등과 같은 투자 기업과도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CES에서 만난 6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20여 개의 파트너 기업과 비즈니스 연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CES 2020 참여를 계기로 선보엔젤파트너스의 미국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내년 ‘CES 2021’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CES 2021에 참여하는 이유는 미국 지사설립과 투자한 미국 스타트업의 밸류업을 위해서입니다. 선보엔젤파트너의 우수한 포트폴리오 기업과 함께 밸류업 및 미국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하게 됩니다.



arkive "부동산을 같이... 더욱 가치 있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아카이브코퍼레이션'



아카이브코퍼레이션 / 이창열대표

선보엔젤파트너스가 그동안 투자했던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액이 집행된 곳이 있습니다. 아카이브코퍼레이션입니다. 부동산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만드는 데 도전하고 있는 독특한 스타트업입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아카이브코퍼레이션의 도전을 믿었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투자 담당자인 커넥팅팀 김민구 과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요즘 소비 트렌드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소비하고,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카이브코퍼레이션은 '트렌디한 공간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해 부동산을 같이... 더욱 가치 있게'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라이프스타일과 뷰티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콘텐츠 기업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브랜드를 믿고 소비를 결정했다면, 지금은 자신의 개성과 맞는 스몰 브랜드를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시대는 지나가고 이젠 10~20평 정도 되는 미니 숍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브코퍼레이션은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대변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아카이브코퍼레이션이 가장 먼저 도전한 아이템은 공유 미용실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기획을 했고, 지난 1월 서울 강남에 살롱포레스트라는 공유 미용실 1호점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건물 지하 1층과 2층은 식당이 있었지만, 이젠 주말이나 저녁에도 입주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소비자를 끌어올 수 있는 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성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뷰티 숍입니다. 살롱포레스트 1호점이 서울 중심지인 강남 건물의 지하에 자리잡은 이유입니다.

김민구 과장은 "살롱포레스트는 나만의 숍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미용실 창업 솔루션입니다. 누가 봐도 가고 싶은 썬



리티 있는 인테리어에 자기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솔루션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살롱포레스트는 고급스러운 공간은 물론, 장비, 마케팅, 각종 부대 운영관리 서비스를 도맡아 제공합니다. 이곳에 입점한 헤어디자이너는 고객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창업 경험이 없는 사람도 시술에 자신만 있으면, 가위만 가지고 본인들의 숍을 차릴 수 있습니다.

살롱포레스트는 워킹 여성을 위한 뷰티 숍에 교양과 커뮤니티 성격을 더하려고 합니다. 편안히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서울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2호점, 3호점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이창열 아카이브코퍼레이션 대표는 "올해 '살롱포레스트' 4호점까지 내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의 비전은 '생산 그리고 소비의 방식을 새롭게 디자인하자'입니다.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은 서비스 본질에 집중을 할 수 있게, 소비자는 본인이 소비하는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 않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카이브코퍼레이션은 점포마다 콘셉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1호점은 나를 돌보는 시간, 휴식인데요. 컨셉에 충실하게 편안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연출했습니다. 오래 걸리는 미용 시술은 대개 4~5시간씩 걸립니다. 기존 미용실과 다르게, 본인 자리에서 노트북을 두고 업무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가 아카이브코퍼레이션과 손을 잡은 또 다른 이유는 팀 파워입니다. 회계사 출신의 창업가 이창열 대표, 아주대에서 건

축학과 겸임교수를 지내고 있는 권영훈 이사가 공간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권 이사는 유명 부동산 기획사의 스카우트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이창열 대표의 비전에 공감해 합류했습니다. 브랜드 디렉터를 맡은 정병인 이사는 이창열 대표가 대학 시절 창업했을 때 함께 일했던 후배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역할을 하다가 함께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맨파워가 아카이브코퍼레이션의 힘입니다.

이창열 대표는 많은 투자사 중 선보엔젤파트너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창열 대표는 "투자자를 결정하는 게 배우자를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김민구 과장은 1호점을 론칭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연락했습니다. 투자 제안과 함께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제3자의 관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줬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부울경 중견기업 연합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까지 아카이브코퍼레이션의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창열 대표는 선보엔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으면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싱가포르와 독일에 해외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창열 대표는 선보엔젤파트너스의 해외 네트워크의 힘을 빌려 해외 진출할 것입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아카이브코퍼레이션의 가능성을 더 확대할 것이고, 아카이브코퍼레이션의 확장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와 함께 성장할 아카이브코퍼레이션의 향후 행보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
신규 포트폴리오

 Hoow Foods Pte. Ltd.	 NuSpace Pte. Ltd.
<p>식품을 더욱 건강하게 재가공하는 기술력 및 AI플랫폼 개발 설립일: 2018년 2월 사업화단계: Seed 투자 유치 소재지: 싱가포르 홈페이지: www.hoowfoods.com</p>	<p>IoT 사용을 위한 나노 인공위성의 설계, 제작 및 배치 설립일: 2018년 11월 사업화단계: Seed 투자 유치 소재지: 싱가포르 홈페이지: www.nospace.sg</p>
 Beep Technology Pte. Ltd.	 E3A Healthcare Pte. Ltd.
<p>자판기 결제를 QR코드 기반으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게 한 하드웨어 및 재고관리 및 운영 관리 가능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설립일: 2018년 9월 사업화단계: Seed 투자 유치 소재지: 싱가포르 홈페이지: www.beepbeep.tech</p>	<p>신생아 황달의 혈액 검사 필요치 않는 실시간 진단 및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 설립일: 2019년 3월 사업화단계: Series Pre-A 투자 유치 소재지: 싱가포르 홈페이지: www.e3ahealth.com</p>
 아카이브 코퍼레이션	올리브바이오테라퓨틱스
<p>오프라인 공유 뷰티 플랫폼 설립일: 2019년 7월 사업화단계: Seed 투자 유치 소재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arkive.co.kr</p>	<p>노인성 황반변성 예방 및 치료제 개발 설립일: 2019년 12월 사업화단계: Seed 투자 유치 소재지: 광주광역시</p>
 에이엠홀로	 제이앤킴
<p>위조방지 마이크로 홀로그램 입자 개발, 보안 용 암호 프린팅 설립일: 2019년 9월 사업화단계: Seed 투자 유치 소재지: 울산광역시</p>	<p>중이염 수술에 적용하는 스텐트 개발 설립일: 2016년 4월 사업화단계: Seed 투자, 당사와 디오메디컬 공동투자 소재지: 경남 김해시</p>

선보엔젤파트너스
신규 포트폴리오

 ECO RnS Co., Ltd	 GIVN
<p>CO2 활용하여 리튬계 페리튬이온전지로부터 Li, Co, Mn 등 유가금속 회수 기술 개발 설립일: 2020년 3월 사업화단계: Seed 투자-상용화 검증설비제작 소재지: 부산</p>	<p>프리미엄 피트니스 및 필라테스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설립일: 2018년 8월 사업화단계: Seed 투자-필라테스 및 커머스 확장 소재지: 서울 홈페이지: www.givn.co.kr</p>
 YOU CAR Networks	
<p>KTX 및 공항 기반의 무인 차량렌탈 및 법인카 셰어링 서비스 설립일: 2018년 12월 사업화단계: Seed 투자유치-법인카셰어링 확장 소재지: 부산 홈페이지: www.youcar.co.kr</p>	

선보엔젤파트너스 / 포트폴리오 NEWS

- 리센스메디컬 LB, 스틱, BNK에서 80억원 후속 투자유치 완료
- 다나그린 JW에서 20억원 후속 투자유치 완료
- SB솔루션 플래티넘 및 BNK에서 10억원 후속 투자유치 완료
- 드림에이스 삼성벤처에서 5억원 후속 투자유치 완료 신용보증기금 5억원 투자유치 완료
- 내일해 당사 Follown 투자 및 파트너 기업 CEO 등 3.7억원 후속투자 유치 완료
- 엑세스랩 선보엔젤파트너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에서 3억원 후속 투자유치 완료
- 콜라비팀 더시드, 오픈워터인베스트, 와디즈 등 후속투자 유치 완료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신규 포트폴리오

<p>ENHANCEDBIO INC 인핸스드바이오</p>	<p>Himedi 하이메디</p>
<p>NRDO 기반 항암신약 개발 설립일: 2016년 11월 사업화단계: 시리즈B 투자 유치 소재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enhancedbio.com</p>	<p>의료 컨시어지 서비스 설립일: 2014년 6월 사업화단계: 시리즈B 투자 유치 소재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himedi.kr</p>
<p>DEEDIIM 디딤센서 Sensors</p>	<p>RECARBON, INC. RECARBON, INC.</p>
<p>머신비전 센서 개발 설립일: 2018년 3월 사업화단계: Series Pre-A 투자 유치 소재지: 강원도</p>	<p>플라스마 탄소자원화 기술 설립일: 2011년 8월 사업화단계: 시리즈B 투자 유치 소재지: 미국 홈페이지: www.recarboninc.com</p>



현대공업, 실리콘밸리식 100억 펀드 조성

지난해 11월 현대공업과 라이트하우스는 부산 선보엔젤파트너스 본사에서 100억 원 규모의 'HDI패스티이노베이션펀드(이하 HDI펀드)' 조성을 위한 결성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펀드명 HDI는 현대공업의 영문 약자로, 현대공업은 해당 펀드의 최대 출자자(LP)입니다. 라이트하우스가 펀드를 운용합니다.

HDI펀드의 약칭은 '세상에 없는 펀드'입니다. 그동안 주목적용 두고 투자하는 스타트업 펀드와 달리 HDI펀드는 주목적 투자대상도, 1회 투자 규모 제한도 없습니다. 중견기업 주도의 순수 민간펀드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딱앞이 보이는 기업들에게는 과감하게 베풀고, 현대공업이 테스트베드 제공 등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해줄 계획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글로벌 인재 팀빌딩과 함께
새로운 글로벌 스케일업 준비

- 한국, 싱가포르, 베를린을 연결하는 20여명의 채용



2020 상반기 공개 채용을 통해, 20명 이상의 인재를 발굴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 설립 이래 가장 큰 채용 규모입니다.

신설 팀 개설과, 보다 빠른 밸류업을 위해서 대거 채용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다양한 산업군의 전문 인재가 선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능뿐 아니라 좋은 태도와 몰입도를 가진 훌륭한 인재들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베를린에서도 현지 공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Deloitte, YOBO 경력의 인재를 비롯하여, EUV출신 등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글로벌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한국, 가나, 독일, 중국의 인재가 모여 다국적 팀빌딩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채용을 통해 투자 뿐 아니라 산업 및 글로벌의 연결과 밸류업, JV, M&A, 홍보 등을 수행할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여 글로벌 스케일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또 한 번 크게 도약하는 선보엔젤파트너스가 되도록 다짐하며,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줄 주역들을 소개합니다.



경영기획



박준웅 과장
부산

- 명지대 경제학, 무역학
HULT MBA FINANCE, STRATEGY
- 유진증권 / 은산그룹

직장 생활 10년간 증권사와 그룹 지주사에서 투자와 전략을 담당하였습니다. SAP에서 그동안 배운 Know-How를 발전시켜, 더욱 밝은 미래에 일하겠습니다.
Achieve 2020



유민준 대리
부산

- 중국 동화대 경제학 석사
- United Overseas Bank

중단기적으로는 중견기업 니즈의 결에 맞는 회사의 발굴을 통해 회사의 유기적 성장에 정확하게 기여하고자 하며, 장기적으로는 'VC에국한되지 않은 SAP의 그랜드플랜'을 실행할 수 있는, 실력 있고 검증된 인력이 되겠습니다.

밸류업



백민정 과장
서울 강남

- KAIST 산업디자인
KAIST Techno MBA
- EY Parthenon / PwC Consulting / 신한은행

다양한 사회/환경 등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드는 기업들을 발굴, 임팩트 투자를 성사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순 투자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비즈니스적 측면에서의 밸류업을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송봉규 대리
서울 강남

- 건국대 기술경영학 석사
- Chafia Ventures / Dico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를 적극 돕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서 저희 포트폴리오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를 돕고 싶습니다.



김하늘 대리
서울 강남

- 관광경영학 전공
- GKL 세브릭 카지노 / 현대카드

4년간의 현대카드 STUDIO BLACK Site 운영 경험과 창업 생태계 최전방 현업의 노하우로, 신사업 발굴, Open innovation PoC 진행 시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만다 대리
서울 강남

-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사회학 연세대 Global MBA
-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해외시장조사를 담당하며 동남아대양주 시장을 개척했던 경험과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통해 유력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와 밸류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박성용 사원
울산

- 울산대 경영학
- 유투메드텍

화장품 제조업 관련 스타트업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졸업하기 전에 SAP의 포트폴리오 중 한 기업에서도 경영기획과 국가과제 관련된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SAP에서 커넥팅업무나 밸류업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현호 사원
광주

-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중어중문학과
- 더인벤션랩

GIST 액셀러레이팅 업무와 광주특구 그리고 밸류업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또 항공우주 산업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리서치하고 공부하여 향후 SAP에서 우주산업 담당이 되고 싶습니다.



김지윤 사원
서울 강남

- 이화여자대 국제학, 벤처경영학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팀스평가팀

TIPS선정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운영사와 밀접하게 교류하다 보니 투자사에서 투자업에 대한 목표의식이 생겼고, 그 시작점을 선보엔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의 핵심 키워드는 '동반성장'입니다. 스스로와 선보엔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혜 사원
부산

- 한동대 경영학, 사회복지학
- 경희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피부생명공학센터

전공도, 경력도 투자와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열심이란 하기 보다는 일을 잘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



박시내 대리
서울 역삼

- 안양대 경영학
- 세무법인나라 / 앤커넥트 / 넥스트칩

다양한 산업군에서 회계 경험을 쌓은 만큼 SAP에서도 빠르게 적응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람 대리
서울 역삼

- 일본 토요대 경영학
- 케이트의원 / 코디성형외과

그동안의 업무 경험으로 쌓은 콘텐츠 기획력, 브랜드 마케팅 노하우를 살려 SAP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기획



박준우 차장
부산

-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KAIST 경영대학원 Professional MBA
- 한국화이자제약 / 녹십자 / 코오롱생명과학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한 바이오 및 의류기기 분야와 함께 food, smart farm 등에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추후에는 이러한 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목표로 있습니다.



손민구 차장
울산

- 경희대 전자공학과 KAIST techno MBA
- LG전자 / LG화학 / ETRI holdings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및 플라스틱 소재, ICT 기술 유관분야에 경험이 있습니다. ICT 및 제조 분야에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의진 과장
서울 역삼

- Cornell University 응용통계학 석사
- 삼성화재 / 삼성생명

삼성그룹에서 경험했던 업무적, 시스템적인 것들의 장점만을 SAP에 녹여 업무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또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SAP에 획을 긋는 일을 발굴해보고 싶습니다.



김준성 대리
부산

- Purdue University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NYIT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석사
- 국방과학연구소

전기전자 전공으로 약 3년간 근무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장 경험을 살려 전기전자, 통신, 군수무기, 선박 관련한 파트에서 SAP의 ICT, 국방 관련 스타트업 발굴과 사업확장에 힘쓰고 싶습니다.



하재선 사원
서울 강남

- 성균관대 경제학
- P&G /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 이스트프링 자산운용

전공과 경력 모두 금융/투자 관련으로 카카오인베스트먼트 RA시절 산업용 로봇, 핀테크, 스마트팜 등 다양한 섹터의 일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트너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구도의 좋은 일들을 발굴하겠습니다.



Rene Owusu Afram 사원
울산

- UNIST 생명과학

연구를 통해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한국회사 전체에 주력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홍보



윤재서 사원
울산

- 동명대 경영학

대학생때부터 창업동아리 활동, 연구원분들과 국가 R&D사업이나 지자체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부딪히며 나아가겠습니다.

SUNBO FAMILY NEWS



선보공업 : '제 13회 세계해양포럼' 대한민국 해양대상 최우수 회장

지난해 10월 선보공업 최우수 회장인 '제12회 대한민국 해양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해양대상'은 매년 가장 활동이 두드러진 해양수산 기업인 한 명을 선정하는 상입니다. 최우수 회장은 조선기자재 산업 분야에서 40여년 동안 헌신해온 산증인입니다. 선박 부품 모듈화에 성공하는 등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더불어 부산시 기능경기대회 기술위원장을 맡아 조선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해양산업의 기초를 다진 공로도 인정 받았습니다. 해양대상 수상을 위해 연단에 오른 최우수 회장은 스스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공의 길을 개척해왔는지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선보엔젤파트너 최영찬 대표가 조선업 미래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식 회장은 스스로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공의 길을 개척해왔는지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해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 선보엔젤파트너 최영찬 대표가 조선업 미래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BNK투자증권과 40억 펀드 결성



지난해 11월 선보엔젤파트너스와 BNK금융그룹은 BNK금융그룹 본점에서 '부·울·경 스타트업 투자펀드 약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약정식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지주 등과 함께 40억 원 규모의 'BNK·선보 부울경 스타트업 신기술 사업투자조합 1호'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펀드는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핀테크, 바이오, 신소재 등 지역의 주력 산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해 BNK부산은행의 'BNK 썸 인큐베이터'와 'BNK 핀테크랩' 내 입주 기업과 연계 투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청소년 성장지원에 1000만 원 후원

선보엔젤파트너스 임직원 모두가 참여해 조성한 100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청소년성장지원프로그램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가정이 해체되거나 부모의 보호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2016년 선보엔젤파트너스 최영찬 대표이사 내외가 결혼식 축의금 3000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건강한 기부 문화를 만들고,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SUNBO ANGEL PARTNERS NEWS

DBR Case Study - 중견기업 연합 벤처투자 플랫폼



"왜 지방의 중견 제조업체는 늘 신사업에 실패하는 걸까?"

선보공업의 후계자로 신사업 추진에 골몰하던 최영찬 당시 선보공업 사업기획팀장(현 선보엔젤파트너스 대표)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선보공업은 1986년 최 대표의 부친인 최금식 회장이 창업한 회사로 조선 해양플랜트 분야, 특히 선박 모듈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하지만 조선업의 침체를 앞두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했다. 수년에 걸쳐 신기술 개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 봤지만 건진이 실패했다. 보다 전문적인 인력으로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 대표가 외부 인재인 오종훈 공동대표, 고덕수 이사를 전격 영입해서 2016년 액셀러레이터 선보엔젤파트너스(이하 선보엔젤)를 스핀오프하게 된 이유이다. <기사 바로가기>

포브스 2월호 - 가족기업의 성공 방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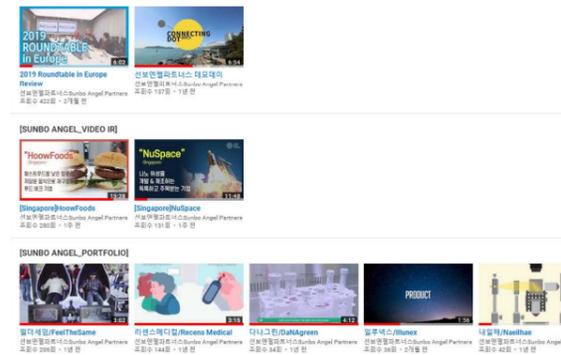


"가족기업은 전 세계 GDP의 70%, 전 세계 고용의 60%를 차지한다. 가족기업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성장의 핵심 동인이다. 가족기업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치 창출을 하는냐가 세계 경제에 중요한 셈이다." <기사 바로가기>

포브스 3월호 - '말뚝의 눈물'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존 제조업은 어떻게 대응할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기업들은 대응하기 어려운, 즉 내부적인 R&D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이다." <기사 바로가기>



'위기를 기회로', 글로벌 스타트업 Video IR 데모 런칭

전 세계적으로 공식적인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 요즘, 스타트업 역시 투자사와 IR 일정조차 잡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과 자금 유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당분간 오프라인 IR 일정을 조율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선보엔젤파트너스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인 포트폴리오의 IR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투자 담당자가 직접 투자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밸류업 전략 및 성장 계획 등을 상세하게 전달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KNN방송 인물포커스 - 최영찬 대표 인터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입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 그리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스타트업, 그리고 상장시장과 연결된 투자 분야가 각기 다른 지점들을 바라보면서 생태계를 만들어왔기에 새로운 혁신이 발생하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이러한 새로운 혁신을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각기 떨어져 있던 기술과 산업 그리고 투자의 점들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국내 최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금융과 투자 생태계를 연결해 왔으며 또 각 산업분야에서 리딩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실현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 사업지주회사입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경제를 드는 대한민국 수출액의 40% 제조인구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의 수도이지만 현재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바탕은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사람을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는가에 토지와 노동 자본의 규모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사업의 성패를 가를 만한 과거에서 기술과 고급인력 등 지식과 네트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핵심으로 바뀐 지금에 중요한 생산요소들을 저희 기업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 핵심기술과 원천기술을 발굴하고 보육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산업과 창업생태계로 연결시키는 것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에 부산이 가장 좋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4년, 선보엔젤파트너스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선보엔젤파트너스는 설립 이후 지난 4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약 100여 개 국내 최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또한 100여 개의 중견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80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하였고 10개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개최되는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통해 중견기업 관계자 스타트업 대표 그리고 투자사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현재까지 약 2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소개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공동투자자 공동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에서,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지인 독일 베를린 지사에서는 글로벌 최고의 기업들과 스타트업과 또 오픈이노베이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혹시 말피의 눈물을 들어보셨습니까? 스웨덴의 작은 도시 말피는 70년대 코코스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의 선박 생산 도시였었지만 한국과 일본의 부상으로 도시 자체가 몰락하는 시련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업과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금의 말피는 유럽 최고의 첨단기술의 미래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저희 선보엔젤파트너스는 기술과 창업을 대표하는 창업생태계를 그리고 라운드테이블을 중견기업으로 상징되는 산업의 생태계를 또한 대한민국 최초로 중견기업 연합펀드를 만든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는 투자의 생태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기술과 산업 그리고 투자의 연결을 투자의 분야를 하나로 연결하여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생태계를 부산에 계신 지역 기업과 그리고 스타트업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인터뷰 바로가기>